

‘팔자>사자’ 아파트 매수심리 위축에 하락세

전국 8개 도 수급지수 14개월 만에 100이하로
서울 8주 연속 ‘공급우위’ ... 지방 전세 수요 ↑

새해 들어 전국적으로 아파트 하락 지역이 확대되면서 아파트 매수 심리도 더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아파트 매수심리가 5주 연속 기준선(100)을 밑돈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8개 도에서도 아파트를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이에 비해 방학 이사철을 맞아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수급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지방 8개 도의 매매수급지수가 99.9를 기록하며 100 이하로 떨어졌다.

지방 8개 도의 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간 것은 2020년 11월 9일(98.9)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 설문을 통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0~200까지로 지수화한 것이다. 매매지수가 기준선인 100 미만이라는 것은 현재 시장에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남(100.4)과 충남

(101.7), 강원(102.4)은 아직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보다 높지만, 지난주보다 지수는 하락했다.

이번주 아파트값이 보합으로 전환된 전남(91.9)과 경북(99.4), 충북(98.3) 지역도 지난주보다 지수가 떨어지며 8개 도 평균을 100 이하로 끌어내렸다. 이에 비해 전북은 지난주 101.5에서 이번주 102.8로 지수가 올랐고, 제주는 99.0으로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번주 수급지수가 92.8까지 내려와 92.6을 찍었던 2019년 9월 9일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8주 연속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공급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는 93.2, 지방 5대 광역시는 94.4로 각각 지난주보다 하락했다.

이에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도 95.6으로 5주 연속 기준선을 밑돌았다. 이번주 아파트값이 2년 9개월 만에 하락 전환된 대전은 수급지수가 지난주(96.1)보다 1.7포인트 하락한 94.4를 기록



비키 달린 신개념 이동형 TV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9층 LG전자 매장에서 연일 품절대란을 보이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이동형 TV ‘스텐바이미’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했다. 이에 비해 방학 이사철을 맞아 일부 지방 아파트 전세 시장은 수요자가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주 수도권 외 지방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0.9로 지난주(100.5)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전세 공급에 비해 수요가 늘어난 것이

다. 울산(103.9), 전북(103.3), 충남(103.1), 강원(102.0) 등지는 전세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가운데 지난주보다 지수도 상승했다.

기준선 이하인 부산(99.7)과 전남(98.0), 대구(93.6), 세종(90.9) 등도 지난주보다는 전세수급지수가 상승했

다. 제주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98.3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으나 이번주는 103.6으로 다시 기준선을 넘었다.

이에 비해 수도권에서는 서울(94.5)과 경기(95.9)의 전세수급지수가 지난주보다 하락하며 수요 감소 상태가 지속됐다. /연합뉴스

전남TP 레이저센터, 우수기관 선정

(재)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국가연구시설 성과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는 지난해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 국가 연구시설 최종 20선을 선정, ‘2021 연구시설 성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남TP는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의 ‘차세대 스텐트 공정혁신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과제수행과 관련해 우수한 연

구 성과(펄토초 레이저 기반 고분자 스텐트 가공시스템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스텐트 제조기술 개발)을 거뒀다. 또한 보유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와 공동활용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TP 유동국 원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고 보급하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고가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시설환경을 바탕으로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역량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전남농협, 로컬푸드매장 활성화 100곳 확대·1천억 매출 목표

농협전남지역본부부는 9일 중소농의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농협은 로컬푸드직매장 20곳을 신규 개장과 로컬푸드직매장 매출 실적 1,000억원이라는 목표를 두고 ‘착

한소비의 중심’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남농협은 이를 위해 지역 농축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의 원활한 개설 추진을 위한 단계별 현장 컨설팅, 사업설명회 및 농가교육 등 농축협의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설 확대와 더불어 로컬푸드 직매장 내실화로 질적 성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성진 기자

광주 첫 평당 3천만원대 아파트 등장

사랑방 부동산, 2021년 일반 분양가 조사결과 ‘라멘트힐’ 역대 최고가... 일부 타입 청약 미달

광주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3,000만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달 광산구 월계동에서 분양한 ‘라멘트힐’이 3.3㎡당 3,384만원으로 광주 역대 최고 분양가를 경신한 것이다.

평당 3,000만원대 분양가는 지난 2014년 남구 제일 풍경채가 평당 1,012만원에 분양하면서 1,000만원 대를 넘은 뒤 7년여만의 일이다.

광주·전남 부동산 플랫폼 사랑방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아파트 일반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 평균 1,692만원(청약률 공시기준, 발코니 확장비 미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전년도 분양가(최고가 기준)였던 평당 1,328만원보다 364만원 오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평당 3,300만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해당 단지는 12월 분양한 광산구 월계동 라멘트힐로, 평균 분양가는 평당 3,384만원이다. 프리미엄 펜트하우스를 표방하는 대형 아파트로 세대별 분양가는 최저 23억9,300만원부터 최고 38억900만원이다.

라멘트힐 이전 광주 최고 분양가 아파트는 2019년 분양한 서구 농성동 신세계 빌리브 트레비제로, 평당 평균 2,665만원에 분양됐다.

비슷한 시기 분양한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 MVG의 분양가는 평당 2,459만원이었고, 2020년 분양한 서구 농성동 더 리미티드는 2,234만원에 공급됐다.

이처럼 초고가 단지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광주 전체 분양가 상승도 견인하고 있다. 프리미엄 아파트가 늘어난 것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대형 아파트 희소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수요도 커지기 때문으로 사랑방 부동산은 분석했다.

하지만 높아진 분양가만큼 수요자들의 진입장벽도 높아 프리미엄 단지의 공급이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초고가 분양의 일부 타입은 미달 세대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랑방 부동산 최현웅 팀장은 “아파트라는 편리한 주거문화는 향유하되, 확실적인 구조와 비슷한 크기를 탈피하고픈 고소득층의 수요가 우리 지역에도 증가했다”며 “다만 초고가 단지들의 가격이 일반 아파트들의 심리적 저항선도 움직여 분양가 전반을 상승시키는 협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경제 프리즘

글로벌 IP스타기업 모집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 광주지식재산센터는 ‘2022년도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출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IP(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사업은 광주시 소재 수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화를 통한 IP(지식재산)경영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시와 특허청이 지원하고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내달 15일까지 모집한다.

한국발명진흥회 고준호 상근부회장은 “광주시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전문기관으로서 노력하겠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김혜린 기자

올해 국민연금액 2.5% 인상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가족수당 성격으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2.5% 오른다. 배우자는 연간 26만9,630원, 자녀·부모는 17만9,710원으로 각각 작년보다 6,570원, 4,380원 인상됐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사람의 ‘A값’(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은 작년보다 5.6% 증가한 268만1,724원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로또 6/45(997회)	
당첨번호	4, 7, 14, 16, 24, 44 보너스 20
등위	당첨금액
1등	1,253,749,560원
2등	46,708,317원
3등	1,075,354원
4등	50,000원
5등	5,000원
연금복권720+(88회)	
등위	당첨번호
1등	2조 329695
2등	각조 329695
3등	각조 29695
4등	각조 9695
5등	각조 695
6등	각조 95
7등	각조 5
보너스	각조 565110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